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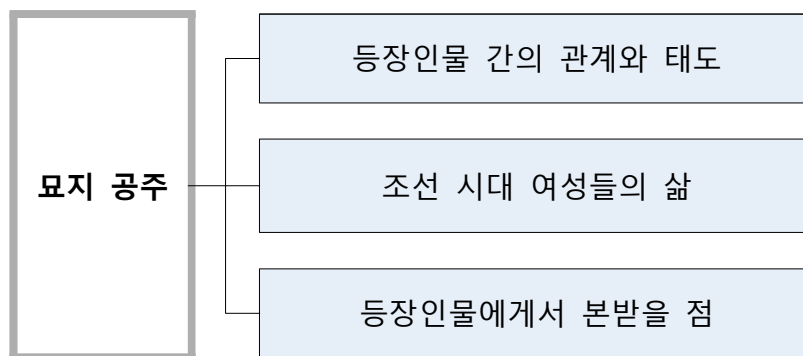
묘지 공주

- * 글 : 차울이 * 그림 : 박병욱
- * 출판사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정가 : 11,000원
- * 분량 : 148쪽 * 대상 : 초등 5학년

· 책 소개

-조선 시대의 잘못된 관습을 이겨 낸 여성의 삶을 환상적인 내용으로 풀어낸 이야기.
묘희는 묘지에 버려진 아이로 백호의 보살핌 속에서 강인하게 자란 소녀입니다. 자신의 쌍둥아 오라버니가 나타나 집으로 간 묘희는 규수 수업을 받으며 조선 시대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묘지에 버려진 이유도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묘희는 이러한 사회에 순종하지 않고 변화를 꿈꿉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는 여러 인물과 동물들을 통해 성장하며 불합리한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낸 용기 있는 소녀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 독후활동 주제망



교안 개발 :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맘들의 커뮤니티 허니에듀와 멤버십 서비스 허니에듀 초등 북클럽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독서지도안]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묘지 공주』의 앞뒤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번호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예)	묘지 공주가 혹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까?
1	
2	
3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의 머리말을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머리말은 작가의 말, 서문이라고도 해요. 작가님이 책을 쓰신 까닭이나 책 전체 내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작가님이 독자에게 바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2. 『묘지 공주』의 본문 146~148쪽에 실린 ‘작가의 말’(이 책에서는 ‘정후의 말’)을 읽고 이 책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점을 써 보세요.

번호	작가의 말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점
(예)	이 책에는 허준 의원이 귀신 치료법, 두창 치료약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1	
2	
3	



독서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을 즐기며 읽기

- 인상 깊은 내용을 정리하며 읽기
- 상상하며 읽기

『묘지 공주』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구분	페이지	책을 즐기며 읽기
인상 깊은 내용을 정리하며 읽기	(예) 16쪽	모두가 두려워하는 두창에 전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청원은 병을 고칠 방도를 찾기 위해 무덤까지 찾아온다. 아무리 의원이라고 해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청원은 정말 광(빛날 광 '光')인처럼 느껴진다.
상상하며 읽기	(예) 33쪽	오라버니(정후)가 도령이라는 것을 보면 묘희도 양반인 것 같은데 왜 묘희는 버려진 걸까? 묘희가 전염병 같은 것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병 을 옮기기 전에 버려진 것은 아닐까?



독서 후 독후활동 주제1_등장인물 간의 관계와 태도

(1~2) 『묘지 공주』에 등장하는 다음 인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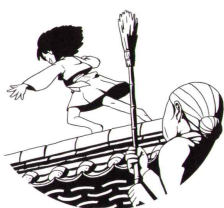
매화



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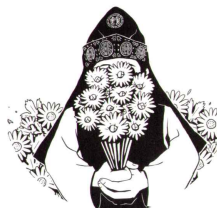
구구



유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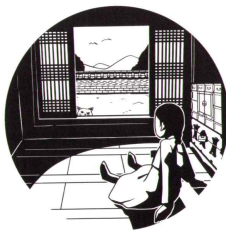
착호장



정후

1. 『묘지 공주』의 여자 주인공은 ‘묘희’이면서 ‘정혜’이기도 합니다. 여주인공을 둘러싼 위 그림의 인물들은 각각 여주인공을 누구로(‘묘희’인지 ‘정혜’인지) 인식하고 있는지 써 보세요.

‘묘희’라고 생각하는 인물



‘정혜’라고 생각하는 인물

2. ‘묘희(정혜)’가 다음의 각 인물에게서 애정 또는 가족애를 느꼈던 일을 찾아 써 보세요.

구구	(예) ‘내 간’ 또는 ‘내 묘희’라고 부르며 항상 곁에 있는 모습
정후	
유모	
착호장	
매화	
백호	



독서 후 독후활동 주제2_조선 시대 여성들의 삶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보통 쌍둥아가 태어나면 평민들은 좋아합니다. 관청에 신고하면 곡식을 줬거든요. 반면 양반들은 꺼렸지요. 성별이 같은 쌍둥아는 키우기도 했다지만, 남녀 쌍둥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씨를 버린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싫어서 아니예요? 대감마님이 시켰잖아요.”

“그 말이 맞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여긴 조선입니다. 반상의 법도가 있고, 남녀가 유별합니다. 헌데 한 어미 뱃속에서 남녀가 같이 자라다뇨. 양반가에서는 가문의 수치라 여겼습니다. 거기다 필시 여아가 남아의 앞길을 막고, 가문에 화를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남아는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니, 대신 영아를.....”

(나) 규수는 말을 많이 해도, 뛰어다녀도, 집 밖을 돌아다녀도 안 됐다. 그중에 제일 성가신 건 식사 예절이었다. 손쓰지 마라, 빨리 먹지 마라, 흘리지 마라. 특히 싫은 건, 이거였다. ‘왜 밥 많이 먹지 말래!’ / 콩알만큼만 먹으니, 늘 배가 꼬르륵꼬르륵 화를 냈다. 구구가 음식을 몰래 훔쳐오지 않았다면, 진즉에 규수를 관뒀을 것이다.

“아씨, 오늘은 삼종지도, 칠거지악에 대해 배웁시다. 여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아침부터 유모가 책을 읊었다. 삼종지도는 이랬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결혼 하면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따른다는 것이었다.

칠거지악은 시집가서 하면 안 되는 일곱 가지 행동이었다.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아들을 못 낳는 것,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질투하는 것, 유전병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독질하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하면 남편이 쫓아낼 수 있다고 했다.

1. (가)~(나)를 읽고, 조선 시대의 여성들이 겪었던 일이나 지켜야 했던 규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2. (나)에서 칠거지악의 내용을 찾아 적고, 현대 사회에 맞게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내용으로 바꾸어 보세요.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	---



독서 후 독후활동 주제3_등장인물에게서 본받을 점

1) (가), (나)를 읽고, ‘청원’과 ‘묘희’가 겪는 갈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가) 하나라도 여기면 마마신이 화가 나서 환자를 죽인다고 믿었다. 이미 착호장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다. 대체 미신이 뭐라고.

정혜는 한걸음에 청원에게 달려갔다. 오랫동안 가문의 주치의의 역할을 했으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역시 만사 제쳐놓고 따라왔다.

“정후가 두창에 걸렸다 들었네. 치료약을 거의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지고 치료하겠네.” <중략>

“약은 절대 안 돼. 나가게. 내 집에서 당장! 여봐라. 의원님을 끌어내라.” / “안 되네. 이대로 두면 위험하네. 자넨 정녕 정후를 죽일 셈인가!”

(나) “유모, 왜 병을 달고 살아요? 의원 안 만나봤어요?”

“남녀가 유별하다고 아녀자와 계집은 진료도 해주지 않아요.”

“에? 정말요? 그럼 여의원은 없어요?”

“당연하죠. 여자들은 글도 못 배우게 하는데, 의원 공부는 누가 시켜준대요?”

이때 묘희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꿈은 조선에서 이룰 수 없으니까. /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제가 변하면 돼요!”

2) 위 1)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묘희’가 했던 일을 (가), (나) 각각 쓰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이 책의 주제를 쓰세요.

‘묘희’가 한 일

(가) : □□□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라며 정후의 □□를 허락받는다.

(나) : 천국에서 □□을 배워 돌아와 □□이 되었다.

이 책의 주제

불합리한 제도나 □□과 싸워서 올바른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의 □□을 이룬다.



3) 다음 글을 읽고 조선 시대가 신분제 사회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준’이 높이 평가받는 까닭을 써 보세요.

그동안 허준은 궁에서 임금님을 위해서도 일했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여러 의학서를 살펴 『동의보감』도 저술했다. 따뜻한 마음씨도 고스란히 들어갔다. 많은 백성이 두루 읽도록 쉬운 글자로 쓰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와 치료 방법을 썼다.

